

## Dave Mathewson 박사, 해석학, 강의 14, 구조적

### 및 수사학적 비평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좋습니다. 해석학과 성경 해석과 관련하여 우리가 논의해 온 주요 주제는 텍스트 중심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해석학, 해석학 이론 및 해석 방법이 텍스트 뒤의 역사, 저자의 의도, 텍스트를 발생시킨 출처와 형식 또는 텍스트에서 활용한 저자에 초점을 맞춘 보다 역사적 지향적인 접근 방식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저자 중심 접근 방식에서는 저자의 의도를 의미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의해 제기된 몇 가지 질문을 고려할 때, 역사적, 논리적으로 초점은 문학적 접근이나 텍스트 중심 접근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학 비평, 형식주의를 조금 살펴봤고 구체적으로 내러티브 비평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유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해석에 대한 두 가지 더, 간단히, 두 가지 더 텍스트 중심의 해석 접근 방식을 계속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중 적어도 하나는 저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초점을 맞추지 않고 텍스트에서만 의미를 찾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종종 저자와 역사적 독자 및 배경에 대해 설명하지만 여전히 텍스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텍스트 뒤에

있는 출처와 형식이 아니라 텍스트와 그 작동 방식, 설득력 있는 기술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수사적 비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지막 텍스트 중심 접근 방식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며 저는 텍스트 중심 접근 방식에 수사적 비평을 포함시켰으며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 해석과 텍스트 해석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제가 살펴보고 싶은 첫 번째 텍스트 중심 접근 방식은 구조주의로 알려져 있으며 앞으로 보게 될 이유로 이에 대해 논의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조주의는 일반적으로 그 진로를 다 마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는 우리가 다음 세션에서 이야기할 후기구조주의(post-structuralism)라는 운동으로 대체되었으며, 다른 방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구조주의는 어떤 측면에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구조주의에 대해 읽기 시작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방법이나 원칙의 모음으로 보이기보다는 텍스트에 대한 철학이나 접근 방식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구조주의는 다시 성서 본문과 심지어 기록된 본문을 훨씬 넘어서는 운동이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인문학, 심리학, 사회학 등에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 연구에서 전성기를 누렸으며 실제로 1920년대 일부 운동에서 시작하여 꽤 일찍 발전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성경 연구에도 진출했습니다. 구조주의에 따르면 그것이 무엇인지, 구조주의에 따르면

의사소통의 가장 심오하고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의 목적에 따르면 의사소통은 텍스트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텍스트이며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부분입니다. 텍스트의 표면 수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텍스트를 읽을 때 텍스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의미와 이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텍스트의 표면 구조나 페이지 표면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깊은 곳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텍스트의 기초가 되는 구조.

따라서 표면 구조와 심층 구조라는 두 가지 용어는 종종 구조주의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표면 구조가 다시 텍스트의 표면에서 발견한 것, 단어, 문법적 구조, 우리가 종종 텍스트의 개요라고 부르는 것, 텍스트가 구조화되고 결합되는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구조는 실제로 표면에 있는 것을 발생시키는 깊은 기본 구조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조주의가 하는 일은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표면 구조 뒤를 꿰뚫고 깊은 구조, 그것을 야기한 더 깊은 의미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작가도 인지하지 못했던 심오한 구조. 그래서 구조주의는 다시 저자의 의도에서 멀어졌습니다.

해석의 일차적인 목표는 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밝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표면 구조를 만들어낸 심층 구조, 저자가 쓴 글을 결정짓는 심층 구조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저자가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깊은 의미 구조는 인간의 사고 자체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 속에.

그래서 우리가 종종 단어, 문법, 텍스트를 구성하고 개요를 배열하는 방법과 연관시키는 표면 구조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목표는 텍스트의 표면 구조 바로 뒤에 있는 심층 구조를 매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주의가 하는 일은 종종 반대파와 함께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빛과 어둠, 선과 악 등. 구조주의의 한 예, 그런 다음 적어도 북미, 특히 성경 연구에서 옹호한 한 개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평가를 통해 간략하게 살펴보십시오.

한 가지 예는 구조주의입니다. 적어도 구조주의를 연구하고 이를 성경 본문에 적용한 일부 사람들은 행위 모델이라는 모델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즉, 서사를 특히 일차적 활동, 즉 모든 다양한 서사와 서로 다른 표면 구조를 낳는 서사의 보편적 구조인 것처럼 보이는 일차적 구조의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이 행동 모델은 내러티브 내에서 여섯 명의 서로 다른 행위자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모델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보는 것에 대해 다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사의 순서에 따른 표면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입니다. 이 행동

모델은 내러티브 내에서 여섯 부분 또는 여섯 개의 행동 요소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내러티브에 대상을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발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신자에게 객체를 전달하려는 발신자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송신자는 주체를 통해 해당 객체를 수신자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다섯 번째 범주인 특정 도우미의 도움을 받고,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범주인 특정 반대자에 의해 반대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행위자 모델로 알려진 6개의 행위자가 있습니다.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객체를 전달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고, 반대자들의 반대를 받는 주체를 통해 그렇게 한다.

그리고 목표는 내러티브를 살펴보고 그것이 구조를 어떻게 따르는지, 그리고 이야기와 내러티브 뒤에 숨은 기본 구조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구약성서 본문과 신약성서 본문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비유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유와 같은 더 작은 서술 단위, 더 작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체 이야기. 적어도 내 관심 분야인 요한계시록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예는 요한계시록이 종종 이 행위론적 모델의 적용을 받아 서사의 배후에 있는 주요 구조인 주요 행위자를 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분석에 따르면 계시록을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가 전달하려는 대상은 구원이나 심판이다. 그 대상의 수신자, 수신자 또는 수신자는 교회, 즉 일곱 교회 또는 전 세계가 될 것입니다.

보낸 사람이 이 목적, 즉 구원이나 심판을 전달하려고 시도하는 제목은 본문에 나오는 천사들, 천사 존재들의 도움을 받고 수많은 반대자들, 특히 사탄의 반대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로는 이 여섯 행위자의 모델이 개별 장에 적용되기도 하고, 다른 경우에는 요한계시록 전체가 해당 모델에 따라 분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내 의도는 주요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내러티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폭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것을 평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이 때때로 구조주의에 따라 분석되거나 본문의 심층 구조를 살펴보는 방법에 대한 예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방법의 어려움 중 하나는 때때로 심층 구조를 분석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표면에 있는 것을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는 성경 연구에서 구조주의 뒤에 있는 주요 인물 중 한 사람인 PATTE의 Daniel Potte라는 개인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구조주의를 대중화한 사람, 또는 다른 곳뿐만 아니라 북미 성서 연구 학자들 사이에서 구조주의를 대중화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포테(Daniel Potte)는 프랑스 구조주의라는 운동의 영향을 받았으며, 1970년대 중반부터 책 형식과 기사 형식으로 여러 출판물을 출판했으며, 그곳에서 그는 밴더빌트 대학에서 가르쳤던 성경 해석에 대한 구조적 접근 방식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수년 동안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접근 방식으로 구조주의를 학자들 사이에서 다시 대중화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한 일은 텍스트에 대한 공시적 접근, 즉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텍스트의 다양한 구조, 언어 구조, 서사 구조, 텍스트 구조 등을 밝혀낼 것이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텍스트 구조의 기초가 되는 기본 텍스트 자체의 기초가 되는 신화적 구조입니다. Potte에 따르면 이러한 기본 구조, 텍스트 아래의 이러한 언어적, 신화적, 서사적 구조는 복잡하며 반드시 저자에게 알려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 구조는 저자의 의도가 아니라 텍스트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목표는 저자의 마음 속에 전혀 없었을 수도 있고 표면적으로 본 것을 발생시킨 근본적인 구조를 지도화하고 밝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Potte에 따르면 다시 한 번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저자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구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Potte는 자신의 글 대부분과 성경 본문에 대한 주석에서 서술 구조를 자주 분석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행위자 또는 행위자 모델에 따라 내러티브를 분석했습니다. 송신자는 주체를 통해 객체를 수신자에게 전달합니다. 주체는 조력자에 의해 도움을 받고 반대자에 의해 반대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이 모델에 따라 선한 사마리아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것을 제공하는 목적은 이에 대한 동의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비유가 구조에 따라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여리고로 가는 길에 도적이나 강도들에게 뛰어내려 공격을 받는 여행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와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한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를 도와 그의 건강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포테는 그 비유에서 행동을 받는 사람은 길 위에 있는 여행자라고 말했습니다. 수신자가 전달하는 대상은 건강입니다.

주체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리고 도우미는 여행자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그를 때리는 강도들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나는 그가 한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 어떻게 그 모델을 사용했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에 관해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관해서 포테는 본문 내의 반대에 따라



분석했습니다. 이는 구조 분석과 다니엘 포테(Daniel Potte)의 분석에서 본문에 있는 대립의 관점에서 심층 구조를 밝히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를 들어,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반대,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 부족 사이의 반대, 영적인 물과 문자적인 물 사이의 반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 텍스트의 서사의 의미는 작가의 의도가 아니라 텍스트 이면에 숨어 있는 깊은 구조에서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제 이 방법에 대한 최종 진술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언급할 한 가지는 내가 이미 지적했듯이 구조주의는 그 과정을 다 마친 것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더 이상 그다지 많은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성경 텍스트에 대해 너무 많은 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음 세션에서 살펴볼 접근 방식, 즉 포스트구조주의로 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에 대한 몇 가지 관찰이 있습니다.

우선, 그때 우리는 구조주의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 많이 듣지 못합니다. 다니엘 포테(Daniel Potte)조차도 구조주의에서 벗어나 텍스트 해석에 있어 보다 사회학적 접근이나 문화적 접근으로 옮겨갔습니다.

둘째, 일부 구조주의가 강조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어휘의 복잡한 성격과 이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어휘의 기술적 성격입니다. 그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려면 고도로 기술적인 어휘인 어휘를 숙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내가 이미 암시한 한 가지 관찰은 구조주의가 제공한다고 알려진 통찰력이 깊은 구조보다는 텍스트의 표면 구조에 더 많이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구조주의의 통찰 중 일부는 단순히 표면 구조 자체를 분석하여 얻을 수 있는 통찰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학비평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근본적인 심층 구조에 대한 텍스트의 표면 구조를 무시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표면 구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해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모든 유형의 심층 구조에 대해 갖고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물론 표면 구조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가진 것이 텍스트 자체뿐인데 어떻게 구조적 주석을 검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구조주의는 더 이상 해석학의 주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그것에 대해 많이 듣지 못합니다. 여전히 약간의 영향력이 있지만 그것에 쓰여진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방법이었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만져봤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경로를 밟고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다른 해석학 이론과 접근 방식에 자리를 내준 접근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고려할 마지막 텍스트 중심 접근 방식, 즉 수사적 비평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반드시 저자나 흔히 말하는 수사적 상황을 괄호로 묶지 않는다는 점에서 텍스트 중심의 접근 방식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 중 일부는 성경 본문이 나온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은 수사학 비평가의 관심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역시 본문 전체에 초점을 맞추고, 본문의 구조와 작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여기에 배치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내용을 고려하면, 이제부터 구조에 대해 이야기할 때 텍스트의 표면 구조를 언급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구조주의가 근본적인 심층 구조에 사용했던 기술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구조에 관해 이야기할 때, 저는 그것을 사용하여 텍스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텍스트의 표면 구조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학 비평은 텍스트 전체, 즉 텍스트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텍스트 중심 접근 방식의 범주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수사비평의 주된 특징은 설득의 수단으로서 텍스트의 관점에서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 같다. 설득력 있는 기술과 청중을 설득하는 능력의 관점에서 텍스트를 분석합니다. 적어도 고대 수사학의 고전적인 표현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다른 고대 그리스 및 로마 수사학자와 그들이 수사학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어도 그들의 수사학 이론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노출시키는 많은 글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성경 본문의 수사적 차원의 설득력 있는 측면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데 가치가 있는 그러한 작품을 채굴했습니다. 따라서 수사학적 비평의 관점에서 성경 본문은 수사학적으로 분석되거나 설득을 위해 어떻게 구조화되고 결합되는지, 그리고 설득력 있는 논증을 어떻게 포함하는지 분석됩니다.

그리고 수사학적 비평은 구약과 신약의 해석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신약성서에서 거의 전적으로 수사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신약성서 문서를 분석하는 것과 특히 관련된 몇 가지 인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서 연구에는 수사학 비평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었습니다.

우선, 스타일, 비유적 표현, 수사적 논증과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적 단위나 다시 수사적 스타일 또는 논증이 텍스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등 문서의 수사적 기법을 간단히 연구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이나 모델 중 하나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첫 번째, 수사적 단위를 식별하는 것은 단순히 단위의 시작과 끝을 분리하여 텍스트의 단위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사학적 기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단위는 더 넓은 맥락에서 어떻게 기능합니까? 그러나 셋째, 수사적 설정, 즉 이 단위가 다루고 있는 상황과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분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단원의 교육 스타일과 증명 및 논증 등을 분석합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서 수사비평은 특정 부분의 수사적 기법, 기능, 논증 수단 등을 살펴보기 위해 다소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이에 대한 수많은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특히 신약성서 연구에서 수사학 비평에 대한 두 번째 접근 방식이 실제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것은 신약성서 본문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즉, 텍스트의 큰 부분, 특히 연설문을 분석하거나, 더 구체적으로 서간체 문헌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다른 신약성서 작가들의 편지와 서신을 고대 수사적 연설과 고대 수사적 연설 패턴에 따라 분석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와 아리스토텔레스 및 다른 사람들이 쓴 일부 고대

수사 핸드북에서 논의되고 개요가 설명된 고대 패턴은 다음과 같은 범주를 취하고 수사적 언어 형식과 패턴을 취하여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신약성서 문서를 분석합니다. 저것.

적어도 복음주의 학자들 사이에서, 특히 기독교 복음주의 학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업적을 이룬 두 명의 저명한 인물은 우선 조지 케네디(George Kennedy)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로마 수사법을 신약성경 본문에 적용하는 것을 옹호하고 대중화한 최초의 사람 중 하나이며 산상수훈과 같은 본문과 기타 문서를 그리스-로마 수사법에 따라 분석했습니다. 아마도 신약성서 학자들 사이에서 대중화하고 신약성서 문서에 대한 수사학적 접근 방식을 대중화하는 영향력 있는 학자일 것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은 말의 비유와 텍스트의 설득력 있는 수단을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종종 수사학 비평과 관련이 있지만, 그리스-로마 수사학 교과서 핸드북에서 수사학 연설 전체를 가져와서 그것을 성경 본문에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은 벤 위더링턴(Ben Witherington)입니다. 그리고 벤 위더링턴은 거의 모든 신약성경 문서에 대한 주석을 썼고 그 중 대부분은 사회 수사학적 주석, 로마서에 대한 사회 수사학적 주석, 갈라디아서에 대한 사회 수사학적 주석, 사회 수사학적 주석과 같은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등에 관한 것 등

그래서 그는 수사학의 고대 관습에 비추어 성경 본문을 분석하는 일련의 사회적 수사학 논평을 작성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다른 몇 명도 그랬습니다.

연설이나 특히 사도행전을 분석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사도행전의 연설이나 복음서의 산상 수훈과 같은 예수의 연설을 수사학적인 방식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신서, 특히 바울의 편지가 수사적 비평을 적용하는 데 많은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세기 및 그 이전의 그리스-로마 언어 패턴 관례에 따르면, 본격적인 수사적 연설은 다음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사적 연설에는 권고 라고 알려진 내용이 포함됩니다. 권고안은 단순히 원인을 기술하고, 일종의 서론이며, 원인을 기술하고, 문제를 기술하며, 청중의 공감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주장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청중이 공감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내레이션을(narratio) 으로 알려진 것으로, 기본적으로 사건의 배경과 사실에 대한 서술이나 설명입니다.

명제(propositio) 로 알려진 것으로, 기본적으로 합의된 내용, 논쟁할 주요 요점, 또는 저자가 주장할 주요 논제입니다. 네 번째, 시험 기간이 이어집니다. 공증은 저자가 호소하는 증거와 주장을 말하는데, 그 증거는 두 가지 유형인 경우가 많다.

Probatio 에서 Probatio는 Propositio 에 대한 증명에 대한 모든 주장 또는 개인이 주장하려는 내용을 다시 포함하는 더 긴 섹션인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두 가지

유형의 증거가 있습니다. 파토스나 감정에 호소할 수도 있고, 로고스에 호소할 수도 있는데, 이는 일종의 논리적 논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두 가지 유형의 논증이나 증명을 시험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는 반박(refutatio)이라 불리는 것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aroratio, perorati-o, paroratio라고 알려진 것이 있는데, 이는 단순히 주장을 요약하는 것으로 화자의 입장에서 일종의 최종 호소입니다.

따라서 이 여섯 부분, 즉 엑소르디움, 내레이션, 제안, 검증, 반박, 파로라티오는 수사비평에 대한 대부분의 신약성경 서론이나 수사비평에 대한 신약성서학계의 대부분의 접근 방식에서 논의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 중 대부분 또는 전부는 문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문서는 종종 이러한 유형의 범주에 따라 분석됩니다.

수사비평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고대 수사편람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역사적 연설, 즉 수사적 연설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신약성경의 수사비평을 다루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 세 가지가 논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수사적 연설은 사법적 연설로 분류될 수 있다.

즉, 사법 수사 연설은 과거 행위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유형의 수사적 연설의 배경은 당연히



법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법적 유형의 수사적 연설은 과거 행위가 옳거나 그르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수사적 연설은 심의적 수사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숙고적인 수사가 했던 일은 청중이 미래의 행동 방침을 주장하거나 설득하거나 단념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법 수사학은 그것이 옳든 그르든 과거 행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심의적인 수사적 연설은 청중이 미래의 행동 과정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거나 설득합니다. 따라서 아마도 바람직한 행동 방침, 화자는 그들에게 그 행동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려 했을 것이고,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방침이라면, 저자는 그들이 그 길을 따르지 말라고 단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의 수사적 연설은 Epidictic, EPIDEICTIC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신약성서의 수사학적 비평을 다루는 거의 모든 논문의 제목에서 이러한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염병 수사학은 기본적으로 관점을 확인하거나 현재의 일련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칭찬이나 비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이나 비난, 칭찬이나 비난의 기술을 사용하여 사람을 향한 것이든, 다시 현재의 믿음이나 가치관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수사법은 다시 사법 수사법, 과거 행위, 과거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심의 수사법, 미래 행동 방침의 옳고 그름에 대해 청중을 설득하거나 단념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심의 수사법, 그리고 그런 다음 현재의 무언가를 확인하는 Epidictic 수사법. 이제 출발점, 또는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 중 하나는 표현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수사학 비평이 신약성서 연구에 입문하는 데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 중 하나는 한스 디터 베헤(Hans Dieter Betz)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또는 기사도 썼지만 헤르메네이아 주석 시리즈라고 불리는 시리즈의 중요한 주석인 주석을 썼고, 그 안에서 그는 갈라디아서가 변증적이거나 사법적인 수사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사적 연설 기법에 따라 신약성서 편지를 분석한 최초의 신약성서 연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은 본격적인 수사학 연설, 권고, 내레이션, 명제, 시험 등의 여섯 가지 특징을 취한 것입니다. 또한 이 세 가지 유형의 수사학부터 시작하여 그는 갈라디아서가 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과 또는 사법적 수사학의 일부. 즉, 과거 행위의 옳고 그름을 독자에게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시 그의 주석을 선택하면 그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그는 갈라디아서 1장, 6장부터 11 장을 권고로 보았습니다. 원인.

독자들의 공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1장 12절부터 2장 14절까지를 내레이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갈라디아서의 1장에서 2장 중간 부분에서 바울이 유대교 이전의 삶과 예루살렘 사도들, 특히 안디옥에서 베드로와의 상호 작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etz는 그것을 사건의 배경과 사실을 설명하는 내레이션이라고 표시했습니다. 2장 15절부터 21절까지가 제안이었습니다. 이것이 주요 논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의된 내용이며,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논의할 주요 논제입니다. 넷째, 시험 기간은 Betz가 3장 1절부터 4절 끝까지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3장과 4장은 기본적으로 Betz가 바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했던 긴 일련의 증거 또는 논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5장부터 6장까지 편집증( paranasis), 즉 노력적인 자료라고 표시했는데, 이는 실제로 그런 종류의 수사적 언어 패턴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두 장을 편집증 이나 노력적인 명령 유형의 자료로 보았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Betz에 반응하고 갈라디아서는 실제로 변증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제안했습니다. 내 말은, 마지막 두 장을 보면 바울은 확실히 독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설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그는 유대교인들이 자행하는 행동을 취하지 말라고 그들을 설득하고 영 안에서 살도록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가장 최근에는 갈라디아서를 예를 들어 수사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사람들은 그것을 심의적인 수사학의 한 부분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결합하여 변증적 수사과 심의적 수사적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예를 들어, 벤 위더링턴(Ben Witherington)은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갈라디아서는 심의적인 수사법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그것을 권고와 근사 비율과 동일한 범주에 따라 분석합니다. Betz와 Witherington, 심지어 갈라디아서를 분석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흥미롭지만, 때로는 본문을 어디에서 나누는지, 어떤 부분이 명제에 속하는지, 어떤 부분이 이것에 속하는지, 저것에 속하는지는 크게 다릅니다.

그러나 요점은 갈라디아서가 신약성경 서신에 수사학적 접근 방식을 적용하는데 일종의 유익한 분야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했듯이 다른 신약성서의 편지들도 수사학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 중 다수는 Ben Witherington이 논평을 기고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에베소서, 그리고 그리스-로마 수사학에 따라 분석되었으며, 빌립보서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분석되었으며, 유다서 및 다른 책들은 수사학적 분석의 대상이

되었으며 아마도 다양하고 다양한 성공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사비평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우선, 수사비평의 가치는 두 가지 일을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예를 들어 연설이나 편지, 예언서 등의 다양한 부분의 기능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특정 본문이나 본문의 특정 부분이 수사적 연설의 부분과 유사하게 기능할 때, 성경 본문에 대한 이러한 본격적인 수사적 유형의 분석은 실제로 비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비유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다양한 부분의 기능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일하는 방식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수사적 비평이 우리의 관심을 논증과 설득에 더 집중시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기본적으로 신학 문서나 신학 논문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심오한 신학 문서이기는 하지만 신학적인 데이터나 신학적 진리를 전달하려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울의 의도는 아니지만 독자들이 특정 행동 방침을 채택하도록 설득하는 신학입니다. 따라서 수사적 비평은 문서를 단순히 신학적 진리의 용기나 지지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특정 관점을 채택하도록 설득하고, 독자가 특정 행동 과정을 추구하도록 설득함으로써 문서의 진정한 의도에 따라 문서를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체계를 위해. 다시 말하지만, 그것들은 심오하게 신학적인 것이지만 독자를 설득하려는 바울의 목회적 의도에 봉사하는 신학이다.

그래서 그것은 신약성경 서신들의 목회적 의도와 기능을 포착한 것입니다. 분명히 세 번째 가치는 수사학적 비평이 텍스트 전체에 초점을 맞추고 텍스트를 다양한 출처와 형식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전체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수사적 비평은 우리가 전체 텍스트와 그것이 어떻게 기능하고 작동하는지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수사학적 접근 방식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위험 중 하나는 보다 현대적인 수사적 접근 방식이든, 심지어 고대 수사적 연설을 취하여 이제 그것을 문학적 텍스트에 강요하든 관계없이 텍스트에 구성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 문제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벤 위더링턴(Ben Witherington)의 논평과 기타 수사적 접근 방식을 통해 그 접근 방식의 모든 가치와 일부 유용한 통찰력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텍스트나 운문에 대해 그들은 종종 여러 가지 해석을 조사한 다음 지지력이 덜하다고 생각되는 해석을 선택하지만 이것이 권고든 견습 이든 제안 이든 수사 유형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범주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은 가장 적합한 해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Witherington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Paul은 이 문제를 다룬다. 왜냐하면 이것은 숙고적인 수사법이나 그와 유사한 것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며, 반면 Paul이 이 문제를 다룬 이유에 대한 더 적절한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 텍스트는 수사적 연설, 전염병적 연설에서 수행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미하는 반면, 해당 텍스트에 대한 더 적절한 설명과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사적 연설 형식을 가정하고 종종 그것에 비추어 데이터를 해석합니다. 때로는 내가 본 적어도 일부 예가 다른 수단을 통해 더 명확하고 더 나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둘째, 그것과 관련된 일종의 수사적 비평입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전체 수사적 언어 패턴을 예를 들어 연설이든 전체 서한이든 성경 텍스트의 큰 부분에 적용하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수사적 화법 패턴은 문학 장르의 텍스트 자체에 있는 명확한 형식적 표시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즉, 내 생각에는 텍스트 해석과 텍스트 식별은 텍스트 자체의 형식적 기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사학적 비평의 어려움 중 하나는 권고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통제나 공식적인 지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의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전염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시험관, 파라라티오 또는 나래 티오 로 넘어갔습니다.

대부분의 판단은 단순히 섹션 간의 가능한 유추와 유사한 기능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권고와 서술, 제안, 검증 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명확한 형식적 지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제가 특히 신약성서의

편지들을 읽었을 때 주요 형식 지표이자 문법적인 유일한 형식이자 편지에서 찾을 수 있는 다른 형식인 갈라디아서조차도 유일한 지표는 바울이 1세기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1세기 서신.

다시 말하지만, 나는 바울이 그리스-로마의 수사적 언어 패턴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논쟁이긴 하지만 나는 그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울의 양육과 교육은 어느 정도까지 포함되었습니까? 그리스-로마 수사학의 교육과 실천은 어느 정도 포함되었습니까? 그것은 계속되는 논쟁이고 이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 서신을 볼 때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적인 단서는 바울이 1세기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여기에는 전형적인 서신 오프닝이 포함됩니다. 다음 세션에서 장르 비평을 다룰 때 이에 대해 다시 다루겠지만,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를 보면 전형적인 서신적 관습을 발견하게 되며 이는 바울의 모든 서신 전체에 걸쳐 사실입니다. 그들은 서신, 바울, 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열고 인사를 한 다음 일반적으로 감사로 넘어가는 전형적인 방법을 가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와 때로는 수사학의 관점에서 그것을 분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부족하지만 심의 연설이기 때문에 수사학적 관례 때문에 감사가 빠졌다는 비판도 있다.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1세기 서신의 매우 전형적인 형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읽을 때 갈라디아서 4장의 한 부분만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는 예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수사적 기법은 종종 거칠게 다루어지고 명확한 형식적 지표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4장은 보통 바울의 시험의 일부, 즉 단지 그의 증거이자 논증인 것으로 보이지만, 흥미로운 것은 8절의 시작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본래 신이 아닌 자들의 종들이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저 약하고 비참한 원칙으로 돌아가느냐 당신은 다시 그들에게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당신은 특별한 날과 달, 계절과 해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까 봐 두렵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십시오. 당신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러나 영어 번역을 읽을 때 반드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섹션에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Paul이 여기서 약간 전환하여 새로운 단원을 시작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몇 가지 중요한 공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편지의 요청 부분. 그래서 이것은 검증, 일련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요청 섹션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1세기 편지에서 발견했을 세 가지 정도의 전형적인 서간체 형식 공식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새로운 섹션이나 편지의 새로운 초점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지만 내 요점은 이 4장을 수사학적 연설의 일련의 증명인 시험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로 1세기 편지의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독서를 할 때 지침이 되어야 하는 주요 단서는 형식적인 것, 즉 텍스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수사적 비평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글썄요. 그러나 텍스트에 수사적 발화 패턴을 강요하고 명확한 형식적 특징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수사적 연설의 문자가 혼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울이 교육을 받았고 이러한 수사적 언어 패턴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수사적 언어 패턴과 서신 및 편지가 혼합된 적이 있는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결론은 수사적 비평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 특히 신약성경 서신에 전체 음성 패턴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학적 비평은 논증과 바울이 사용했을 수 있는 일부 기술에 초점을 맞춰 설득력 있는 기술을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체 연설을 사용한 수사학적 분석이 텍스트의 기능과 작동 방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수사적 연설 전체를 성경 본문에 강제로 적용하고 주로 그러한 수사적 연설 패턴과 연계하여 본문을 분석하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해석에 대한 텍스트 중심 접근 방식과 의미의 주요 위치로서 텍스트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 방식이 끝났습니다. 문학적 접근이든 서사적 비평이든,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텍스트이고, 우리가 말한 구조주의는 일종의 경로를 밟고 있으며, 수사적 비평은 작가나 역사적 배경을 구분하지 않고 여전히 텍스트와 텍스트 전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텍스트 중심 접근 방식의 어려움 중 하나는 텍스트 중심 접근 방식이 여전히 텍스트에서 객관적인 의미를 산출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중심 접근 방식은 곧 역사적, 논리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세 번째 측면, 즉 독자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텍스트 앞의 의미를 보고, 독자에게서 의미의 위치를 찾는 독자 중심 접근이 곧 두각을 나타냈다.

그리고 오늘날 구조주의는 기본적으로 포스트 구조주의로 알려진 것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포스트 구조주의는 독자 중심 접근 방식, 즉 텍스트를 이해하는 사람은 바로 독자라는 사실을 포함하고 이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접근 방식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션에서 우리는 초점을 옮겨서 특히 독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살펴보고, 이어서 해체주의에 초점을 맞춘 방법에 속하는 몇 가지 다른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할 것입니다. 독자와 의미는 텍스트나 저자가 아닌 독자에게 존재합니다.